

오가노이드로 의학·식품 융합… 지역 딛고 세계적 거점 도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원광대학교
전북도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
W.I.T.H.벨리, R-G.B 연구소 2주년
지·산·학·병·연 협력 성과 점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원광대학교가 인간과 동물을 융합한 바이오 공동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지·산·학·병·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원광대학교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글로벌 레드-그린 융합 바이오 심포지엄 2026: 전북특별자치도 지·산·학·병·연 협력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원광대학교 글로벌사업(W.I.T.H.벨리) 2주년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 개소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광대학교 글로벌대학사업단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지·산·학·병·연 협력 모델의 성과를 점검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레드-그린 융합 바이오 심포지엄 2026: 전북특별자치도 지·산·학·병·연 협력 생명산업 국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원광대학교가 가진 역량을 만나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미 공동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원광대학교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우수한 인재들의 육성도 본격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국내 오가노이드 분야 선두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

언스와 원광대학교의 협력은 지·산·학·병·연의 혁신과 상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며 "아려한 토대 위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한다면 더 큰 도약과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기능성 식

품, 신경과학 등 현장 중심의 융합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구축 가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동물·감염병 ▲식품 ▲신경과학 ▲생식 등 4개 분야, 총 5개 학술 세션으로 구성되어 오가노이드 기술을 축으로 레드바이오(의료·헬스케어)와 그린바이오(농업·식품)를 잇는 융합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다뤘다.

김우순 원광대학교 W.I.T.H.벨리혁신본부장은 W.I.T.H.벨리의 지난 2주년 성과를, 배동혁 R-G.B 연구소 부소장은 연구소의 2주년 발자취를 공유했다.

이어진 학술 세션에서는 기본경 기초과학연구원 단장('Organoid Zoo'), 장구서 울대학교 교수('동물 줄기세포의 현황과 미래'), 배동혁 R-G.B 연구소 부소장('바이러스 감염 모델로서 오가노이드 활용') 등이 연사로 나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은혜 애니멀프라이니셔티브(AFI) 대표의 비동물실험 관련 발표와 김세종 익산시청 축산과 계정의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소개 등 산업 및 정

책적 관점의 논의도 깊이 있게 이뤄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교육부의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글로벌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지·산·학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4년 10월 원광대학교에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연구소(R-G.B 연구소)'를 열었다.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 내 연구개발(R&D) 센터에 입주한 첫 기업이다.

R-G.B 연구소는 인간의 질병 극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레드 바이오'와 식물, 동물은 물론 지구 전체 생태계를 위한 '그린 바이오'를 아우르는 사람과 동물, 지구를 위한 바이오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다.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세계 무대에서 '램시마SC' 입증

오는 17~20일 유럽 소화기학회 참가
200㎡ 단독 부스, 심포지엄 등 운영
램시마 전 제형 라인업으로 차별화

셀트리온은 오는 17~20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6 유럽 소화기학회(UEG Week)'에 참가해 글로벌 의료진을 대상으로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를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IBD) 제품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UEG Week는 유럽을 대표하는 소화기 분야 학술대회로,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소화기 질환 전반기의 최신 임상 연구와 치료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 약 115개국에서 1만 2100명 이상의 의료 관계자가 참석했고 올해도 글로벌 전역에서 소화기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회에서 200㎡ 규모의 단독 부스를 운영한다. 학회장 내에서는 글로벌 IBD 석학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전문가세션(MTE)도 개최해 램시마SC의 장기 임상 근거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차별화된 제품 가치를 조명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램시마 정맥주사(IV)·피하주사(SC) 제형에 더해, 올해 초 유럽에 출시한 램시마 IV 액상제형까지 포함한 전체 램시마 제형 라인업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카마', '유폴라이마' 등 폭넓은 IBD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의 학술 활동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은 실질적인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램시마 제 품군(IV·SC)은 유럽에서 약 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로서 공고한 입지를 증명했다. 유폴라이마 역시 24%의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는 등 후속 제품군 성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 하태훈 유럽본부장은 "이번 UEG Week에서는 글로벌 의료진을 대상으로 램시마SC를 비롯한 셀트리온 IBD 치료제의 가치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여러 임상 데이터와 실제 환자 처방 경험 등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다양한 치료 옵션, 직관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IBD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글로벌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오스템파마, 북아프리카에 'K-덴탈' 전파

‘2026 뷰티월드 중동’ 참가

오스템파마가 북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며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중장기 성장에 속도를 낸다. 오스템파마는 지난 6~8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뷰티월드 중동'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뷰티월드 두바이는 마용 분야 세계 4대 전시회이자 메나 지역 최대 규모의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올해는 전 세계 56개 국가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6만 3000여 명의 참관객이 몰렸다.

오스템파마는 지난 2017~2025년 기준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기록한 대표 제품 '뷰센'을 알렸다. 고탐량 볼소 치약 '뷰

센C', 치약형 치아미백제 '뷰센28', 캡슐형 구취제거제 '오스템 민트볼D' 등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치과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180여 개 바이어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 국가 진출 기반을 다졌다. 현지 주요 헬스앤투티 매장, 대형 유통 채널, 이커머스 입점 등을 추진해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 수출을 넓힐 계획이다.

오스템파마 관계자는 "뷰센은 품질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가능성을 앞세워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 41개 국가에서 해외 수출국을 지속 추가해 글로벌에서 K덴탈케어 입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바사-더웨이헬스케어,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협력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맞손'

CJ바이오사이언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더웨이헬스케어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사가 보유한 역량을 결합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강기능식품의 연구개발 및 유통, 임상·CRO,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CJ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마이크로바이옴 독자 균주(CJRB-101, CJRB-402)를 활용해 장 건강 및 호흡기 건강을 케어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제품은 더웨이헬스케어의 제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



(왼쪽부터)더웨이헬스케어 이정우 대표, CJ바이오사이언스 윤상배 대표, 더웨이헬스케어 최창민 대표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공급되며, 향후 항암 치료 환자 관리 등 전문 유통 채널로의 확장을 검토한다. 장 건강 제품을 시작으로 호흡기 건강 기능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거쳐 복합 기능성 라인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임상 및 데이터 사업 분야에서는 더웨이헬스케어의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IIT) 역량을 활용해 마이크로바이옴 섭취에 따른 장 건강 개선 효과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기존 파이프라인 상품화 진행 시 더웨이헬스케어의 임상·CRO 역량을 우선 활용하고, 건강데이터 관리시스템(HDMS) 구축 등 데이터 기반 기술 협력도 병행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장내 미생물 분석 및 미생물용 탄수화물(MAC) 섭취 관리를 돕는 장 건강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암 환자의 장 건강 관리 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선진, 돼지고기 구이 문화 전문성 강화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 진행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이 돼지고기 품질과 조리법을 함께 이해하는 식육 전문 인력 양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육의 생산·가공 특성부터 실제 굽는 기술까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구이 문화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선진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약산돼지'에서 '제19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진 식육문화연구원원이 운영하는 이 시험은 전국 예비 창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이론 지식과 그릴링 역량을 평가한다.

그릴링마이스터는 고기의 생산·가공·품질 특성을 이해하고 조리 기법을 활용해 육류를 조리하는 전문 역량을 검증하는 등록 민간자격이다. 필기시험에서는 돼지고기의 문화와 역사, 생산·가공, 관능·영



선진이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약산돼지에서 '제19회 그릴링마이스터 자격시험'을 진행했다. /선진

양학적 품질 요소, 구이 조리 가능 등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에서는 선진포크한돈을 활용해 원육 특성에 맞게 고기를 굽는 능력을 살린다.

선진은 2021년 자격시험을 시작한 이후 이번까지 총 19회 운영했다. 지난 18회까지 누적 393명이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